

중	일	기	'	를		읽	으	면	서		놀	라	지		않	을		수	
없	었	다	.	쓴		날	짜	와		날	씨	가		적	힌		일	기	형
식	이		우	리	가		쓰	는		일	기	형	식	과		비	슷	했	기
때	문	이	다	.		16	세	기	의		일	기	형	식	이		어	떻	게
21	세	기	의		일	기	형	식	과		같	을		수		있	을	까	?
또	한		'	난	중	일	기	'	가		'	국	보		제	76	호	'	라
는		것	도		처	음		알	게		되	었	다	.	이	렇	게		홀
룻	한		이	순	신		장	군	에		대	해	서		모	르	는		계
너	무	나		많	았	다	는		것	이		정	말		부	끄	러	웠	고
나	도		모	르	계		더		알	고		싶	은		호	기	심	이	

생	겼	다	.															
	도	대	체		이	순	신		장	군	의		직	업	은		몇	개
일	까	?		책	장	을		넘	길	수	록		신	기	했	다	.	
	첫		번	째	,	그	물	을		쳐	서		피	라	미		때	20
여		마	리	나		잡	으	셨	다	니		마	치		어	부		같
셨	다	.																
	두		번	째	는		시	인		같	았	다	.		왜	냐	하	면
산	과		꽃	과		들	가	의		풀	이		한		폭	의		그
처	럼		아	름	답	다	며		'	중	국		전	설	에		나	오
신	선	이		산	다	는		경	치	였	을	까	?		'	라	고	

00

했	기		때	문	이	다	.	또		우	리		군	사	의		기	운	찬
힘	이		하	늘	을		찌	를		듯	했	다	는		표	현	이		참
멋	있	었	기		때	문	이	다	.										
	세		번	째	,		거	북	선	에	서		지	자	포	와		현	자
포	를		쏘	는		시	험	을		하	셨	다	.	그	리	고		쇠	로
만	든		총		만	드	는		법	을		몰	랐	지	만		연	구	한
결	과		조	총	을		만	들	었	는	데		왜	군	의		조	총	보
다		홀	륭	해	서		명	나	라		사	람	들	이		모	두	들	
총	다	고		칭	찬	했	다	고		한	다	.	또	한		일	기	에	
'	남	풍	이		세	계		불	어	서		지	붕	이		뒤	집	히	고

문	과		창	이		부	서	졌	다	.	말	았	으	나		하	루		내	
내		동	풍	이		불	었	다	.	서	북	풍	이		세	계		불	었	
다	.	'	는		글	이		있	었	다	.	어	똥	게		바	람		부	는
방	향	을		잘		알		수		있	었	을	까	?		이	순	신		
장	군	이		오	늘	날		태	어	나	셨	다	면		분	명		과	학	
자	가		되	셨	을		것	이	다	.										
	네		번	째	는		군	인		같	았	다	.		'	활	쏘	기		
연	습	을		했	다	.	'	라	든	지		'	저	녁	에		순	천		부
사	,		충	청		수	사	와		함	께		활	을		쏘	았	다	.	'
라	고		씩	어		있	기		때	문	이	다	.	내	가		만	약		

이	순	신		장	군	이	라	면		명	령	만		내	리	고		활	쏘	
기		연	습	을		하	지		않	았	을		텐	데		말	이	다	.	
	다	섯		번	째	,		이	순	신		장	군	은		부	산	과		
같	은		큰		진	이		함	락	되	었	다	는		공	문	을		보	
고		원	통	해	서		견	딜		수		없	다	고		하	셨	고	,	
동	래	성		등		계	속	되	는		함	락		소	식	에		분	한	
마	음	을		말	로		표	현	할		수	가		없	다	고		했	다	.
또		명	나	라		장	수	가		왜	군	에		대	한		공	격	을	
늦	추	는		것	은		무	슨		계	략	이		있	을		것	이	라	
는		말	에	는		'	나	라	가		격	정	되	고		한	심	스	러	

위		눈	물	이		쏟	아	졌	다	고		하	셨	다	'.		인	종	의		
제	삿	날	,			'	나	라	를		걱	정	하	는		마	음	이		떠	
날		때	가			없	다	.'	고		홀	로		배	에		앞	아		걱	
정	하	신	다	.		그	뿐		아	니	라		광	양	과		순	천	이		
왜	적	의		손	에		넘	어		갔	다	는		소	식	에		뺏	속		
까	지			아	파	서		말	이		안		나	온	다	는		글	도		
있	었	다	.	한		집	에	서		네		명	의		남	자		중			
두		명	을			전	쟁	에		나	가	게		하	는		것	은		잘	
못	된			일	이	라	는			암	행	어	사		유	몽	인	의		글	에
'	나	라	를			생	각	하	니		마	음	이		아	프	셨	다	고		

하	셨	다	'		'	나	라	가		얼	마	나		위	급	한		상	황
인	지	는		생	각	하	지		않	고		눈	앞	의		일	만		신
경		쓴	다	고	..	'		심	지	어		아	내	의		병	이		심
각	할		때		이	미		죽	었	을	지	도		모	른	다	고		격
정	하	지	만		나	라		사	정	을		먼	저		염	려	하	시	기
까	지		한	다	.	얼	마	나		나	라	를		사	랑	하	셨	는	지
잘		알		수		있	었	다	.										
	여	섯		번	째	,		탐	정		같	다	.	권	을	에	게	서	
공	문	이		왔	는	데		도	장	이		찍	혀		있	지		않	다
고		이	상	히		여	기	셨	기		때	문	이	다	.	영	의	정	

유	성	룡	이		죽	었	다	는		소	문	을		듣	고	는		유	
정	승	을		미	위	하	는		자	들	이		만	들	어		낸		말
일		것	이	라	고		화	를		냈	다	.	또	한		히	데	요	시
가		죽	었	다	는		말	을		듣	고	는		떨		것	처	럼	
기	쁘	지	만		아	직		믿	을		수		없	다	며		진	즉	부
터		그	런		소	문	이		있	었	지	만		아	직		확	실	한
연	락	을		받	은		것	은		아	니	라	고		하	셨	기		때
문	이	다	.																
	일	곱		번	째	,		적	의		배		여	덥		척	이		춘
원	포	에		있	으	니		지	금		공	격	하	시	는		게		좋

을		듯	하	다	는		말	에		"	작	은		이	익	을		보	고
지	금		공	격	하	면		큰		이	익	을		보	지		못	하	는
법	이	오	.	더		기	다	렸	다	가		적	의		배	가		더	
많	이		나	타	나	거	든		그	때		공	격	합	시	다	.	"	라
고		가	르	치	신	다	.	그	리	고		활	을		잘		쏟		자
에	게	는		적	에	게	서		뺏	은		물	건	을		상	으	로	
주	었	다	.	적	의		33	0	여		척	이		우	리		배		13
척	을		에	워	싸		장	수	들	이		도	망	갈		궁	리	만	
할		때	는		"	살	려	고		도	망	가	면		어	디	로		가
서		살		것		같	으	냐	?	"	,	"	대	장	을		구	하	지

않	으	니		그		죄	를		어	찌		면	하	겠	느	나	?		공
을		세	우	면		죄	를		면	해		주	겠	다	.	"	며		설
득	하	시	는		모	습	이		마	치		선	생	님		같	았	다	.
	타	임	머	신	이		있	다	면		나	도		이	순	신		장	군
의		충	실	한		지	원		대	장	이		되	어		전	쟁	하	는
바	다		가	까	이	에	서		싸	워	보	고		싶	다	는		생	각
이		들	었	다	.	위	험	한		상	황	에	서	도		항	상		침
착	한		장	면	을		읽	을		때	면		나	도		몰	래		힘
이		불	끈		불	끈		솟	았	다	.								
	여	덥		번	째	,	배	를		만	들	기		위	하	여		나	무

를		깎	고		쇠	를		녹	여		총	통		두		자	루	를	
만	드	셨	다	니		밭	명	가	의		모	습		같	다	.			
	아	흙		번	째	는		농	부	였	다	.	무		밭	을		갈	아
무	씨	를		뿌	렸	고		더	위	에		가	뭍	이		너	무		심
하	다	며		농	사	일	이		뭍	시		걱	정	된	다	고		하	셨
기		때	문	이	다	.	앞	으	로	도		계	속		비	가		많	이
내	릴		것		갈	아	서		농	사	일	이		걱	정	된	다	는	
부	분	도		농	사	꾼	의		마	음	이	었	다	.					
	열		번	째	는		지	리	학	자	다	.		'	적	들	이		위
낙		힘	한		곳	에		자	리		잡	고		있	으	니		경	솔

하	게		공	격	할		수		없	었	다	.	처	럼		곳	곳	을	
많	이		연	구	하	신		분		같	았	다	.	이	순	신		장	군
이		오	늘		날	에		태	어	나	셨	다	면		분	명		천	재
이	순	신	이	라	고		불	렀	을		것	이	다	.					
	지	난		9	월		13	일		'	사	랑	해		톤	즈	'	라	는
이	태	석		신	부	님	의		이	야	기		관	람	을		위	해	
서	울	에		가	게		되	었	다	.	조	금		일	찍		도	착	한
우	리		가	족	은		이	순	신	장	군	의		동	상		앞	에	서
사	진	도		찍	고		자	세	히		보	았	다	.	책	을		읽	고
난		후		동	상	을		보	니		지	금	도		우	리	나	라	를

